

경제

기아차 사상 최대 임금인상안 부결 왜? 노조 선거 앞둔 계파 갈등이 '발목'

“현대차 협상결과 보고 결정하자” 분위기

기아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인상안이 27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향후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9만원(5.17%) 인상과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자사주 80주 지급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역대 임협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조합원 투표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역대 최대 교섭기간인 16일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새로운 노사협상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4년 이후 7년만에 휴가 전 타결이 기대됐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이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여기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의 입단협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예년에는 현대차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현대차의 인상 수준에 맞춰 사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는 현대차보다 일찍 잠정합의안에 사인했다. 이 때문에 비록 역대 최대이지만 현대차도 올해 '통 큰'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자치하면 현대차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야간 노동에 대해 체력이 한계에 와 있다”며 “이번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요구가 굉장히 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 있을 기아차 노조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의 세력 다툼도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집행부를 노리는 계파들이 이번 교섭위원회에 참가해 잠정합의안에 동의해 놓고, 교섭이 끝난 자마자 이를 부정하고 부결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격적 임금인상안이 계파 갈등 등으로 부결되면서 노사 재협상이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노노-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사측도 더 이상 추가 제시안이 없다는 입장인 채서 올해 무난히 끝날 것 같았던 기아차의 임협은 다시 꼬일 전망이다.

여름휴가를 앞둔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들은 아쉬워했다.

광주공장 노조원들은 이날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잠정합

의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들은 사상 최대 성과급을 들고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기대했던 꿈이 물거품이 되자 아쉬워했다.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공장은 이번 합의안 부결이 신기록 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칫 재협상 과정에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48만3000만대 생산 목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와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에 빠졌다.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최단시간 내 임금협상이 합의돼 안도했는데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안타깝고 충격적이다”면서 “재협상 과정에서 빠른 합의를 이뤄 지역경제에 가 안정되지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유소 가격표시 점검

광주시 북구청이 27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지도에 나선 가운데 북구청 직원들이 신안동 한 주유소에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과 내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실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우일렉 매각 난항

채권단, 엔텍합 계약금 반환 이견 ... 재입찰 논의도 못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기존 대상자와 협상을 없던 일로 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재입찰에 부치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아직 매각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재입찰 일정은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란 기업 엔텍합의 계약금 반환 요구에 대해 채

권단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계약금을 엔텍합에 돌려주는 것을 검토해보는 입장이다.

엔텍합이 계약금 반환을 노리고 제기한 소송 때문에 매각작업이 지체된다는 이유에서다. 계약금 때문에 엔텍합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갚아야 할 외상매출금 3000만달러(약 300억원)의 지급도 미루고 있다.

반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

인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엔텍합이 인수합병(M&A) 계약서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불취한 것이므로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수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지난 5월 말로 협상이 종료된 엔텍합 측은 채권단을 상대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채권단은 엔텍합이 계약금 578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엔텍합과 협상이 결렬된 채권단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와도 협상에 나섰으나 지난 27일 요구를 해오자 역시 협상을 끝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옛 대우전자 시절인 1999년 8월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왔다. 일렉트로룩스와 협상마저 무산되면서 채권단은 총 다섯 차례의 매각협상에서 모두 좌절을 겪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는 캠코로 지분 57%를 갖고 있다. 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5.37%, 외환은행이 6.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앗! 장관님이 면접관석에...”

이재필 고용노동장관 '세계로365병원' 채용 면접 참여

“세계로365병원”을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보수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지난 26일 오후 광주고용센터를 방문한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 '세계로365병원' 신입사원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한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병원코디네이터를 지원한 윤모(23·여) 씨 등 2명을 면접했다. 이 장관은 이들에게 “고객

이 뭔가”, “환자 건강을 위한 역할은?”, “1등 병원으로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등 꼼꼼히 질문한 뒤 취업 준비정도, 장래성, 구직자 성향 등 5가지 면접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매겼다.

면접에 참여한 윤모씨는 “장관이 직접 면접할 줄은 몰랐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올해 초 개원한 '세계로365병원'은 간호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광주고용센터에서 '세계로365병원' 면접관으로 참여해 구직자 면접을 하고 있다.

사·행정직원·코디네이터·영양사 등 50명을 예정이며, 이날 면접에

는 130여명이 몰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반기 항만 물동량 역대 최고

6억3739만t ... 지난해 보다 7.1% 늘어

올해 상반기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6억3739만t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토해양부가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5억9540만t에 비해 7.1% 늘어나고,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보다도 11.6% 증가한 수치다. 항만별로는 평택·당진항과 울산항, 부산항은 무연탄과 유류, 목재류 등 수출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이 각각 28.1%, 11.6%, 10.2% 늘어났으나, 포항항은 무연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입 물량 감소로 인해 작년보다 5.0% 줄었다. 품목별로는 유연탄과 유류, 자동차의 처리량은 각각 12.9%, 11.7%, 8.8% 증가한 반면 모래와 화공품은 각각 8.7%, 5.3% 감소했다.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 늘어난 105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록, 반기 실적으로는 최초로 1000만TEU를 돌파했다.

수출입화물은 전년 동기보다 10.0% 증가한 659만3000TEU, 환적화

물은 10.4% 늘어난 368만TEU, 연안화물은 28.6% 증가한 22만7000TEU로 집계됐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작년 상반기보다 13.0% 많은 787만1000TEU, 광양항과 인천항은 각각 1.5%, 2.2% 늘어난 104만4000TEU, 95만7000TEU를 처리했다.

상반기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늘어난 9062만3000TEU로 나타난 가운데 부산항은 중국 닝보-저우산항과의 격차를 벌리며 세계 5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104

한국은행 375가구 조사 “6개월 후엔 나아질 것”

광주·전남지역민들은 6개월 후 생활형편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전남지역 도시에 사는 37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지역 소비자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4로 전달과 같았다.

또 6개월 전과 비교한 7월의 현재생활형편CSI는 89로 전달과 같았고 6개월 후의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CSI는 9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6개월 후의 가계수입을 예상하는 가계수입전망CSI(97→96)는 1포인트 하락하고, 6개월 후의 가계지출을 예상하는 소비자출전망CSI(108→109)는 1포인트 상승했다.

7월 중 현재경기판단CSI(73→77)는 전달보다 4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84→86)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가 등 물가수준(75%),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9%), 고용사정(8%),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크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은 생활형편전망CSI는 97로 1포인트 상승했다.

▲ 코스피지수	2174.31 (+5.61)
▲ 코스닥지수	538.12 (+2.27)
▲ 금리 (국고채 3년)	3.82% (-0.02)
▲ 원·달러 환율	1050.00원 (-1.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호남 농·수·축 특산품과 함께하는

제1회 아줌마 축전

2011. 9. 2(금)~4(일) 무등경기장 축구장

첫째 날 9월 2일(금)

남진, 현숙, 조항조, 윤대규, 백승일

식전공연 | 농산물개장식 | 아줌마축전개막식
축하공연(아름과 비비의 만남) | 아줌마팔세름대회 | 밸리댄스경연(예선) | 아줌마명상편지 | 유명가수축하콘서트

둘째 날 9월 3일(토)

해바라기, 유리상자, 맥영규

시·군예술탄공연 | 호남예술탄공연 | 아줌마골든벨 | 팔도시투리대회(속풀이발연대)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대회(예선) | 밸리댄스경연(결선) | 아줌마시낭송대회 | 가솔속이야기 콘서트(7080가수)

셋째 날 9월 4일(일)

김홍철(요동송)

시·군예술탄공연 | 미당놀이(시림사는세상)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결선) | 품비경연대회(결선) | 아줌마가요제(결선)

※9월 1일(목) | 전야제 | 품비경연대회(예선) | 아줌마가요제(예선)
(주최사 사정에 의해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홍보판매부스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물생산단체
- 참가문의 : 062-220-0555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